



남원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남원시 관계자는 7일, 남원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가 신호등지역아동센터 집단 지도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1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호기심을 스스로 인지하고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인 △불법촬영 △딤편제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시청각 자료와 퀴즈를 활용해 흥미롭고 쉽게 전달하였다.

한편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 운영

남원시 주천면(면장 노환순)은 지리산일번지 행복나눔터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약자로, 이들은 큰 부피의 이불을 세탁하기 어려워 위생 문제와 심리적 어려움까지 겪어왔다.

이제 찾아가는 이불세탁 서비스로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불을 수거해 세탁, 건조,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운영을 위해 지리산일번지 행복나눔터를 비롯해 주천면 의용소방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고 있으며, 농협 주천지점에서 세탁세제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등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주천면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폭염예방 안전교육 실시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 지난 6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폭염 시 행동요령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처치 방법 △수분 섭취 및 복장 관리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로 구성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무더위 취약 시간(오전 11시~오후 4시)에서의 활동 자제, 규칙적인 수분 섭취, 얇고 밝은색 옷 착용 등 실천이 가능한 안전수칙을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호성동 지사협, 맞춤형 가족친화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창호)는 7일 저소득 가구 40세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맞춤형 가족친화 지원사업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유형에 맞춰 물품을 전달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독거노인가구 20세대에겐 삼계탕·두유·과일(바나나, 멜론, 귤, 사과)을 전달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10세대에겐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한 부모가정 10세대에겐 외식 선불카드 10만 원권을 전달했다.

호성동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문화 실천과 함께 가구별 맞춤 지원을 통해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박창호 호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지원은 호성동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으로 추진되어 더욱 뜻깊은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되고 기쁘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새 주택서 희망의 새 출발'

정읍 소성면 산불 이재민 새 보금자리 '집들이' ... 도민 성금으로 재건

정읍시 소성면 금동마을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정읍시민 등 전북도민의 정성과 성금으로 마련한 새 주택에서 희망의 새 출발을 알렸다.

시는 7일 금동마을에서 집들이 행사를 열고, 산불 피해로 경로당에서 생활하던 이재민들이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게 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에 완공된 주택 3채는 정읍시민과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전북도민이 재해구호 특별모금에 참여해 마련한 성금으로 지어졌다. 공간재난 이후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이 만들어낸 회복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김광영 전북자치도지사, 도·시의원, 전북도·정읍·익산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정읍지회, 소성면 이장단 등 지역 주민 7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덕담 릴레이를 이어가며 힘든 시기를 견뎌낸 이재민을 위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부대행사로선 전북자치도 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가 주관한 '착한나눔 한끼' 행사가 함께 열렸다. 대한적십자사와 소성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20여 명이 식

재료 손질부터 조리, 배식, 설거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성을 기울여 삼계탕을 준비했고, 이를 소성면 34개 마을의 홀로노인과 취약세대 250명에게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내렸다.

이학수 시장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주거지원을 위해 특별모금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재난 상황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 청렴 소통 간담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7일 고창교육지원청 3층 정책협의실에서 '공사·물품·용역 계약업체와의 청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공사·물품·용역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들과 함께 청렴 문화 확산, 부패 방지 및 업무 관행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 동영상(세상을 바꾸는 시간) 시청 △계약 절차 및 부당요구·갑질 예방 및 신고 제도 안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제안 △공정판 계약 집행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숙경 교육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업체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전반에서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에듀테크 활용 학부모 아카데미 성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4~6일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에듀테크 활용 학부모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미래사회 대전환과 교실 수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부모의 디지털 이해도와 자녀 진로 설계 역량을 함께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23명의 학부모가 고창교육지원청 에듀테크 Talk 교육실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행사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프로그램 및 AI 코스웨어 활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높은 호응을 얻었다. 1일 차 '캔바 AI 기능을 활용한 내만의 레이저 각인 쿠키스 만들기'를 시작으로 2일 차 '내만의 AI 합성 사진 만들기', 3일 차에는 'ChatGPT, SUNO, Kling을 활용한 가족영상 만들기' 등 학부모들이 직접 체험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실제로 체험해보니 자녀와의 대화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I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배우는 자녀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숙경 교육장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 변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에듀테크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유총연맹 진안지회, 자유수호결의·한마음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지회장 배병선)는 7일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자유수호결의 및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한편 회원들간의 화합을 위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동창욱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자유통일 헌장 낭독, 유공자표창, 대회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이 누리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는 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의 많은 노력 덕분으로, 진안군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오늘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한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의료진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지역 병원과 협력을 통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광대학교병원을 직접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북광역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된 전북대병원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새싹지킴이병원인 원광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 및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역새싹지킴이병원 아동보호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전북대병원 신경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현상에서의 의학적 판단, 실제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고은정 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초기 대응에 있어 의료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 보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항후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종철 병원장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라며 "전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24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한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직접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장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현안과 불편사항을 함께 논의, 그늘막 설치, 마을 CCTV 설치, 경로당 기능보강, 냉난방기 교체, 얼음정수기 교체, 롯데빌 급경사지 위험지역 대책, 배수로 시설 정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주민건의가 다뤄졌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무더위 쉼터 안내 △지진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 및 대피시설 정보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정보도 함께 전달해 현장중심의 예방 행정을 펼쳤다.한 주민은 "시정 등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런 소통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재철 동장은 "간담회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고령조합원에게 삼계탕 나눔행사 실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7일 무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시원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행사를 열고, 90세 이상 고령조합원 104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취약한 고령조합원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농협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무주농협 임직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한 분 한 분께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곽동열 조합장은 "농업과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고령 조합원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해보고 싶어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동충동, 프로헤어아트에 착한가게 환관 전달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차남, 조태봉)는 7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한 관내 프로헤어아트(사업주 김정화)에 착한가게 환관을 전달했다.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차남 동충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눔 실천에 동참해 주신 프로헤어아트에 감사드리며,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